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Finance.Yahoo: 미 소비자 신뢰지수 3개월째 감소
- Bloomberg: 미 인건비, 임금 상승으로 빠른 상승세
- WSJ: 지속적인 임금 상승에 연준 주목한다
- CNBC: 미국인 62%가 여전히 월급쟁이로 살고 있다

[미국 금융]

- WSJ: '올해 가장 뜨거운 투자 방식은 오히려 손해'

[주택]

- Californialistings: 8월 미 주택 가격 지수, 전년 대비 2.6% 상승... S&P 쉐어 지수

[인공지능]

- WSJ: Assistant Set to DebutMS의 업무 지원 생성형 AI, 출시 임박
- Bloomberg: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AI에 200억불 투자안 발표 행정부

[중국 경제]

- WSJ: 중국경제가 새로운 침체 신호 보인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Bloomberg: 팬데믹 이후 미국 도심 살아난다
- CNN Business: 애플, 가장 빠른 컴퓨터 모델 출시
- CNBC: 맥도날드와 치폴레, 내년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 20불로 인상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Finance.Yahoo: Consumer confidence falls for third straight month

미 소비자 신뢰지수 3개월째 감소

- 비영리단체 The Conference Board가 발표하는 미 소비자 신뢰지수가 10월에 3개월째 하락하고 있다.
- 9월의 상향 조정치 104.3에서 10월들어 102.6으로 감소했다.
- 이 기관의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특히 그로서리와 가솔린 가격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소비자들은 또한 정치와 고금리, 그리고 중동 상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Finance.Yahoo 기사

Bloomberg: US Employment Costs Rise at Faster Pace on Pickup in Wage Growth

미 인건비, 임금 상승으로 빠른 상승세

- 요지: 3분기 임금및 복리 후생 지수 1.1% 상승했고 공무원 급여가 1년중 가장 많이 상승했다.
- 3분기 미 인건비가 예상외로 가속화됨에 따라 강한 노동 시장 리스크가 인플레이션을 연준 목표치 이상으로 계속 상회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연방노동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의 임금과 복리후생 수치를 나타내는 인건비 지수는 1.1% 상승했고, 그 전 2분기에는 1% 상승했었다.
- 민간기업의 급여가 약간 상승한 반면에 주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급여가 급등했다.
- 인건비 지수는 작년과 비교해 4.3% 성장했으며, 이코노미스트들이 선화하는 지표다.

Bloomberg 기사

WSJ: Workers Keep Getting Big Raises. That's an Issue for the Fed 지속적인 임금 상승에 연준 주목한다

- 요지: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내리려는 상황에서 미 임금과 복리후생은 둔화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 미 근로자들은 강한 임금 인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근로자에게 좋겠지만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벌이는 연준에게는 복잡한 이슈다.
- 2분기 인건비가 1% 상승했는데 3분기에 1.1% 올랐다.
- 연준은 오늘과 내일 열리는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가능성이 높지만 임금과 물가 둔화가 예상보다 더딜 경우 향후 수개월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연준 관리들은 이같은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연준 2% 목표치로 둔화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한편 인건비 3분기의 연간 상승세가 4.3%로 2021년 이래 가장 낮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4분기의 연간 상승률 2.7% 보다 여전히 높다.

WSJ 기사

CNBC: 62% of Americans are still living paycheck to paycheck, making it 'the main financial lifestyle,' report finds 미국인 62%가 여전히 월급쟁이로 살고 있다

-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살림살이가 뻣뻣한 미국인의 숫자가 개선될 신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과 숫자에 변동이 없다.
- 한마디로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임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요 재정 생활스타일이라는 것이다.

- 파월 연준의장은 최근에 말하기를 인플레이가 여전히 높다고 말해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 일말에 긍정적인 소식은 일부 온라인 저축 계좌 금리가 현재 5% 이상이어서 저축자들에게는 지난 20년만에 가장 높은 금리다

CNBC 기사

[미국 금융]

WSJ: How This Year's Hottest Investment Could End Up Costing You '올해 가장 뜨거운 투자 방식은 오히려 손해'

- 요지: 머니마켓 펀드가 기록적인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현금이 주식과 채권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월스트리트에서 현금이 이렇게 주목 받은 때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현금을 너무 많이 보유할 경우 포트폴리오에 허점이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 현금 수익률이 5% 이상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머니마켓펀드 보유액을 거의 사상 최고치인 5조6천억까지 늘렸다.
- 금리 상승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주식과 채권에 모두 투자하는 동시에 머니마켓과 같은 가장 안전한 단기 투자 상품이 제공하는 수익을 증가 시켰다.
- 그러나 전문가들의 조언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현금에 돈을 쏟아부음으로써 주식, 채권 및 다른 위험 투자로 이루어진 광범위한 포트폴리오를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을 놓친다고 말한다.

WSJ 기사

[주택]

Californialistings: S&P CoreLogic Case-Shiller Index Continues To Trend Upward In August

8월 미 주택 가격 지수, 전년 대비 2.6% 상승... S&P 쉐러 지수

- 8월의 S&P 쉐러 주택 가격 지수가 작년 대비 연간 2.6%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달 1%에서 상승했다.
- 10개 도시 종합지수는 7월의 1% 상승해서 8월에 3%, 그리고 20개 도시 종합지수는 7월 0.2% 상승에서 8월에 2.2% 상승했다.

- 시카고가 20개 도시중에서 연간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4개월 동안 계속 주도했다. 20개 도시중에 7개는 가격이 하락했다. 20개 도시 중에 12개는 7월에 비해 연간 기준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Californialistings 기사

[인공지능]

WSJ: Microsoft's Hotly Anticipated Generative AI Work Assistant Set to DebutMS의 업무 지원 생성형 AI, 출시 임박

- 내일 수요일부터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생성형 AI Copilot를 사용할 수 있다. Copilot는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AI 중 하나다.
- Copilot는 화상회의를 요약하고, 이메일 응답 초안을 작성할 수 있으며, 워드 파일을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꿀 수 있는 등 마이크로소프트 365 제품 전반에 걸쳐 생성형 AI를 이용한다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인 Jared Spataro는 말했다.
- Copilot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최근의 노력을 보여준다.
- ChatGPT를 만든 기업인 Open AI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주 9월까지 분기 매출이 13% 성장한 56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내일 수요일, 모든 적격 기업 고객들에게 Copilot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 달 라이선스 비용은 30불이며, 최소 라이선스 최소 구매 개수는 300개부터 시작한다고 기업 관계자는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Kamala Harris Set to Unveil \$200 Million AI Investment From Private Foundations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AI에 200억불 투자안 발표

-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AI 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백악관의 노력 일환으로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보조금을 제공하기 위해 자선재단을 통한 2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 기금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AI 기반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도우며 AI에 대한 투명성을 최우선 사항으로 두고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월요일, 연방정부가 새로운 AI 기술에 대해 안보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런 변화는 미국 내 AI 기업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loomberg 기사

[중국경제]**WSJ: China's Economy Shows Fresh Signs of Slowing**
중국경제가 새로운 침체 신호 보인다

- 중국 경제가 공장 주문이 줄어들고, 건설 활동이 둔화면서,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가 해외 부문에서 성장 둔화와 중국 내 부동산 경기 침체에 직면하면서 경제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 중국의 정치인들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최근 몇 주 동안 경기 부양책을 강화했지만, 많은 경제학자는 지금의 경제성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 중국 정부의 공식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9월의 50.2에서 10월 49.5로 떨어졌다고 중국 통계청은 오늘 화요일 발표했다. 여기서 50보다 높은 수치는 활동의 증가를, 50보다 낮은 수치는 활동의 위축을 의미한다.
-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글로벌 경제에 그림자를 드리우면서 중국의 제조기업들은 10월 국내외 부문에서 주문건수 감소를 직면하고 있다.
- 중국의 서비스와 건설 분야 활동 지수 또한 약해져, 경제 전반의 활동 지수가 50.7로 떨어졌으며, 이는 올해 가장 낮은 수치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Bloomberg: What's Driving US Downtown Revivals**
팬데믹 이후 미국 도심 살아난다

-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은 후, 미국 전역의 도심들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율이 저조하게 증가하고, 많은 사무실이 비어있지만, 도심 거주자와 방문객, 그리고 관광객들이 비어있는 도시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
- Paul Levy와 그의 팀은 도심에서 활동 패턴을 분석해 주요 세 그룹으로 분류했다. 첫째는 도심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들, 둘째는 도심에 거주하는 사람들, 셋째는 문화와 관광을 즐기기 위해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다.
- 방문객, 거주자, 근로자들을 모두 종합하면서, 보고서는 앞으로도 미국의 도시가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 그러나, 미국 전역 도심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는 멀었다. 도심이 살아나고 번영하기 위해선 더 많은 것들이 요구된다. 도심의 사무실 공간을 채우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Apple unveils its fastest iMac and MacBook Pro models yet

애플, 가장 빠른 컴퓨터 모델 출시

- 어제 월요일 저녁 생중계 행사에서, 애플이 애플의 차세대 제품군을 소개했다. M3, M3 PRO, M3 Pro Max와 몇 가지 새로운 컴퓨터가 그것이다.
- 기존의 제품을 가지고 있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프로세서는 매력적이지 않더라도, 이번의 M3프로세서는 어느 때보다 속도와 성능을 빠르게 향상시켜, 애플의 최신 제품들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 애플 관계자는 이번 M3 프로세서는 기존의 M1프로세서 제품군들에 대비 2.5배 성능이 빨라졌으며, 핵심 처리 성능은 50%까지 향상됐다고 말했다. 이번 프로세서는 3나노 기술이 적용되었으며, 고성능 그래픽과 인공지능 기술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CNBC: McDonald's, Chipotle to raise menu prices in California next year as fast-food wages rise to \$20

맥도날드와 치폴레, 내년 캘리포니아에서 최저임금 20불로 인상

- 캘리포니아의 패스트푸드 직원들은 식당업계와 노동 단체 간의 타협으로 인해 시간당 최저 20달러를 벌게 된다.
- 맥도날드와 치폴레 기업 관계자는 이런 임금 상승을 상쇄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의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맥도날드의 CEO인 Chris Kempczinski는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맥도날드의 시장점유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CNBC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5% 국채금리에 통화정책 외주"...美연준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

프리미엄, 수급, 고금리 장기화 전망 등 국채금리 고공행진에 영향 "중동 전쟁 고려시 5%가 천장" vs "기준금리 수준까지는 오를 수도" 엇갈려

최근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5%에 근접하면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대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31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최근의 국채 금리 고공행진과 관련해 이같이 전망했다.

4월 초 3.3%에서 8월 4.01%를 거쳐 지난주 5%를 돌파했던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4.89%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